

경제

광주 첨단·목포 하당·남악 중심상업지구

영세 개인사업자 세부담 늘 듯

국세청 간이과세 대상서 제외 ... 여수 중앙동은 신규 지정

광주 첨단지구(광산구 월계동), 목포 하당·남악지구에 있는 영세 개인사업자세율 세 부담이 다소 커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17일 이같은 내용의 '2010년 간이과세제기준 개정안'을 고시했다. 개정안에는 광주·전남지역 호철과 대형유통점 등 5개 지역·건물이 간이과세제대상에 추가됐다. 여수 중앙동 지역은 상권 쇠퇴 등으로 배제대상에서 빠졌다.

간이과세는 전년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영세 개인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율을 낮춰주는 것이다. 간이과세에서 배제되면 일반사업자처럼 세금을 내야 한다. 업종과 업태별로 차이가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3% 가량을, 일반사업자는 매출액의 10% 가량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최근 상권 변동 등 경제여건을 고려해 종목(업종), 부동산임

대업, 과세 유흥장소, 지역 등으로 나뉘어 간이과세제 기준을 조정했다. 이번 조치는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며 부동산임대업자는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국세청은 우선 지역 기준에서 129곳을 추가하고 12곳을 제외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신규추가된 곳은 호철·백화점 부문에서 영암 삼호읍 현대호철, 함안점 부문에서는 광주시 광산구 장덕동 롯데마트 수원점

이 포함됐다. 이 건물안에 입주한 상인들은 간이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중심 상업지역에는 광산구 월계동 853 일대, 목포 하당·남악지구가 새로 포함됐다.

반면 여의도백화점, 대전 흥명상가 등 2개 집단상가, 동대구 동화백화점 수성점 주변, 여수 중앙동 등 9개 지역 등은 상권이동 및 폐업 등의 이유로 간이과세제 제외지역에서 제외됐다.

부동산임대업은 실태조사 결과 부동산임대료 급등 지역이 없어 추가되거나 제외된 지역이 없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光銀 '성년의 날' 특별 이벤트

송기진 광주은행장이 17일 본점 16층에서 'CEO와 함께하는 성년의 날 이벤트'를 열어 성년이 된 직원 자녀 11명에게 선물을 전달한 뒤 케이크를 자르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현대그룹 위기설 '모락모락'

현대상선 등 실적 악화 ... 채권銀, 재무구조 개선 약정

최근 업계에서 '모락모락'했던 재무구조 위기설이 현실화하면서 현대그룹에 위기가 닥쳤다.

17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주채권 은행인 외환은행과 채권금액 상위 3개 은행인 산업은행, 신한은행, 농협은 오는 31일까지 현대그룹과 재무구조 약정을 맺기로 의결했다고 한다.

채권은행들과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하는 이유는 쉽게 말해서 재정 건전성이 악화했기 때문이다. 현대그룹의 재정 상태가 채권은행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 것은 계열사의 전반적인 실적이 좋지 못한 탓이 크다. 특히 그룹 전체 매출의 60%를 차지하는 현대상선의 실적 악화가 큰 이유로 분석된다. 현대상선은 작년 글로벌 경기침체의 여파로 5천764억원의 영업손실을 냈고, 부채비율은

284%까지 치솟았다.

재무구조 약정이 체결되면 현대그룹은 부채비율을 줄이는 한편 유동성 확보와 생산성 향상 등 금융당국이 지정한 재무 표준에 맞추는 노력을 해야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계열사나 보유 자산 매각 등을 통한 군살빼기와 유상증자 등의 자구노력까지 펼쳐야 한다.

채권은행들은 앞서 지난달 말 주채무계열(대기업그룹)에 현대그룹을 포함했고, 이러한 소문이 시장에 흘러나가면서 현대상선과 현대엘리베이터 등 현대그룹 계열의 주가가 급락하기도 했다. 현대그룹은 채권은행들이 재무구조 개선 약정에 포함하자 최근 실적이 개선된 점을 들어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으로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연협뉴스>

순천 '중흥 S-클래스'

오늘 3순위 청약 접수

전남지역 최고 명품 신도시인 순천 신대지구에서 인기리에 분양 중인 중흥S-클래스가 18일 3순위 청약에 들어간다.

17일 중흥건설(회장 정창선)은 "1·2순위 청약에 이어 18일 3순위 청약을 한다"며 "청약조건이 완화된다. 대상지역이 순천뿐만 아니라 여수, 광양, 하동까지 가능해져 수요자들의 인기를 끌고 있다"고 밝혔다.

중흥S-클래스는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에 3.3만㎡ 500만㎡대의 실속형 중층형 아파트로 59㎡(24평) A형 273가구, 59㎡ B형 288가구, 71㎡(28평)형 388가구, 84㎡(33평)형 517가구 등 총 1466가구다.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24~30층 13개 동으로 전남 동부권에서 최고층 아파트다. 분양가는 3.3만㎡ 500만㎡대 후반으로 내집 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를 겨냥해 책정됐다.

중흥건설 관계자는 "지난 7일 순천 조례호수공원 건너편에 모델하우스를 개관한 이후 10일동안 4만여명이 다녀갔다"며 "특히 1순위 청약에 마감한 결과, 그동안 평균 30~40명이 그쳤던 지원자가 급증해 100명이 넘어서는 등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중흥S-클래스는 18일 3순위 청약에 마지막으로 분양을 일관한다. 당첨자는 25일 발표하며, 계약은 6월1~3일 있을 예정이다. 문의 1588-2110.

/비즈니스기자 jwpark@kwangju.co.kr

올 추석 과일구경 힘들다

이상저는 영향 착과율 40~50% 불과

유통업계 사과·배 등 물량 확보 비상

올해 추석(9월22일) 때는 배와 사과 값이 크게 오를 전망이다. 지난 겨울의 한파와 올해 봄까지 이어진 이상 저온으로 얼어 죽은 과일나무가 많고, 일조량 부족으로 꽃이 제대로 피지 못하면서 착과율이 떨어져 수확량이 많이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신세계 이마트, 롯데마트 등 유통업체들은 이미 올 추석 때 내놓을 사과와 배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과일 전쟁'에 돌입했다. 이는 예년보다 2~3개월 앞선 것이다.

주 산지인 남부지역의 착과율은 지

난해 대비 40~50% 수준에 머문 것으로 파악돼 올 가을에는 예년에 비해 수확량이 줄고 품질도 떨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유통업체 바이어들은 과일 물량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배 산지인 나주와 영암, 경북 상주 등을 비롯해 사과 산지인 전북 장수과 충북 충주 등에서는 바이어들이 물량 확보를 위한 전쟁을 치르고 있다.

신세계 이마트는 사과의 경우 냉해로 기형 과일이 생길 것을 우려해 농장단위로 구매 계약을 하던 방식을

버리고 바이어가 사과나무를 직접 살펴보고 선별해 계약·관리하는 쪽으로 전환했다.

선별된 사과나무에는 '이마트 계약 농장'이라고 표시된 노란 리본이 부착된다.

배는 냉해로 꽃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해 수확량이 지난해에 비해 30% 이상 줄 것으로 전망돼 사과보다 물량 확보가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광주신세계 이마트 청과담당 관계자는 "최근 주요 산지를 돌아본 결과 장수 사과는 30%, 나주·영암 배는 30~40%가량 출하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 유통업체들의 사전 구매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며 "과일 값도 예년보다 최소 30% 이상 오를 것 같다"고 말했다.

/이문기자 emlee@kwangju.co.kr

금리 0.25%P 인상때 가계 이자부담 1조2500억원

이르면 3분기 기준금리 인상이 전망되는 가운데 대출 금리가 0.25%포인트 오를 때마다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은 1조원 이상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현재 금융권의 가계대출 잔액 553조2000억원 가운데 498조원 가량이 금리 인상의 영향에 노출된 변동 금리형 대출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한은이 하반기 중에 2.0%인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고 금융회사들이 그만큼 대출 금리를 올리면 가계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이자비용은 연간 1조2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계산됐다.

전국 2인 이상 가구(1367만9000가구)의 가구당 추가 이자비용은 연간 9만원으로 추산됐다.

대출 금리가 올해 안에 0.5%포인트까지 오를 경우 연 추가 이자부담은 배로 늘어난다. 대출 금리가 1%포인트 상승하면 추가 이자비용은 5조원에 달하며 가구당으로는 연간 약 36만원이 추가된다.

중소기업의 부담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의 중소기업대출 잔액 601조1000억원 가운데 변동 금리형은 421조원 정도이다.

대출 금리가 0.25%포인트 오른 경우 중소기업의 추가 이자부담은 연간 1조500억원, 1%포인트 상승하면 연간 4조2000억원이 될 것으로 계산됐다. <연협뉴스>

퇴직·구직 희망자 무료 공개강좌

광주경총 전직지원센터

광주경총자총협회(회장 엄홍섭) 전직지원센터는 19일 오후 2시 광주시 남구 서동 KBC광주방송국 3층 강의실에서 퇴직자 및 구직 희망자를 대상으로 커리어코칭연구소 송병일 소장을 초청, 무료 공개강좌를 연다.

이날 강좌는 '취업은 마케팅이다'를 주제로 채용 트렌드 변화, 직장생활에 필요한 비즈니스 능력, 마케팅 차원의 차별화된 구직전략 등 구직자들에게 취업 전략과 정보를 제공한다. 문의 062-654-3420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코스피지수 1,651.51 (-44.12) 코스닥지수 510.25 (-14.73) 금리 (국고채 3년) 3.78% 원·달러 환율 1,153.80원 (+23.30) ※수치는 전일 증가 기준

대인동삼일부동산 (FAX)223-1772 현 01-802-2532 (광주광역시 남구, 대인동 소재) 모델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상무랜드공인중개사 (FAX)383-5221 현 011-609-5221 (상무지구 이바동 김자영 1층) 토지매매, 건물매매

현대공인중개사 T. 062)371-1900, 010-2006-0115 (상무 우리빌딩에서 50m지점) 토지매매, 건물매매, 상가 및 목욕탕 건물 매매

부동산 경제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assetkorea.com = 전국 2만여건의 경제매물리포트 /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 경제전문가 무료상담